

# 탈서구적 시각에서 탐구한 근대미술의 정체성

《한국근대미술》 펴낸 윤범모 교수

한국근대 미술사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윤범모 교수가 펴낸

이번 저작은 그동안 한국미술사의 공백으로 남아 있던 근대미술

영역을 학문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우리 미술이 기억해야 할 작가들과 작품들을 발굴·소개하고

있으며, 서구미술에 경도된 우리 미술계에도 일침을 가하고 있다.

윤범모 교수(50, 강원대 미대)가 《한국근대미술》(한길사)을 펴냈다. 윤교수의 이번 저작은 근대 미술 연구가 태부족한 우리 미술계에 본격적인 근대미술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근래에 이르러 우리 근대미술사 연구가 제법 활성화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일차적인 원인은 기초자료 조사가 전무한 데 있다. 산재해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 1차자료 부족으로 애먹어

“80년대 초부터 근대미술에 관련된 자료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책이 나왔으니 자료조사에만 꼬박 20년이 걸린 셈입니다. 유명한 작가라고 하더라도 남은 작품이 거의 없는 것이 우리 미술계의 현실이었죠.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도판들은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들입니다. 자료가 더 없어지기 전에 빨리 정리해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도 책을 쓴 주요한 동기였습니다.”

윤교수는 그동안 한국근대미술 연구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이유를 미술사학자들이 우리미술을 등한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미술사는 사실상 조선말에 끝난 형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차자료가 너무 부족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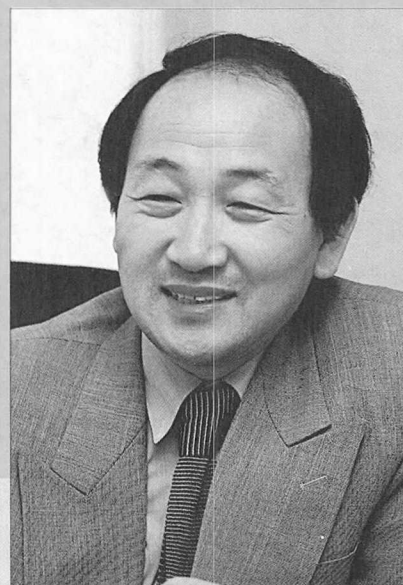
니다. 작가가 남긴 소묘, 기념사진, 일기, 편지 등은 작가와 작품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미술자료관도 없는 실정입니다. 대학의 미술교육도 서구미술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근대미술사라는 커리큘럼이 생긴 것도 최근의 일이지요.”

윤교수는 한국사진의 선구자인 황 철을 처음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황 철은 1883년 서울 대안동(현재의 송현동)에 사진 촬영소를 연 인물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의 작품들은 우리 사진사의 기념비적인 자료다. 그의 사진은 19세기말 개항 이후의 시대상을 생동감있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윤교수는 평한다.

“황 철의 사진에는 문화재들이 주요 소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년 전 서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 가운데는 돈의문과 같이 오늘날 철거돼 없어진 역사현장도 있습니다.”

윤교수는 서구미술사조 중심의 패러다임 또한 우리 미술계가 극복해야 할 시급한 난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그는 “서구의 논리로만 우리 미술을 평가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라고 반문하면서, 서구의 미술 양상을 한국 땅에서 똑같이 재현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한다.

“서양문화가 몰물듯이 들어오면서 모든 사회 체계가 서구화돼가고 있습니다. 미술계 역시 서



윤범모 교수

양화경향이 짙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미술학자 대부분이 서양유학과 출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서구 미술을 절대자의 위치로 봉안해 놓고 우리의 미술과 비교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미술은 늘 왜소하게만 보일 겁니다.”

서양의 특수한 역사·문화·정치·경제·사회 등의 토양이 그들 특유의 미술문화를 창출했다는 말이다. 결국 미술의 ‘다름’만이 있을 뿐이지 ‘우열’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 근대미술의 정체성을 세가지로 분류

윤교수의 이런 ‘서구중심주의 극복’이라는 명제는 ‘주체적 시각’의 강조와 연결된다. 그에 따르면 비록 불품은 없을지라도 우리 미술은 우리문화와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시대에는 독립에 기여하는 미술을, 분단시대 미술



한길아트/B5변형/536면/40,000원

은 통일 지향적 미술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고암 이응노를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암은 평생 먹을 놓지 않은 분입니다. 이는 크게 말하면 동양정신, 작게 말하면 민족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먹을 고수하면서 항상 새롭게 환골탈태해 국제 미술계에 발맞춰 가신 분이었죠. 또한 분단 조국의 현실을 진정으로 가슴 아파한 분이었습니다. 작가정신을 올곧게 지켜나간 표본이죠.”

한국근대미술 연구에 더해진 또 하나의 어려움은 우리 미술작품의 가치가 학문적 검토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미술시장에서 매겨지는 상품가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술작품이 역사적·미학적 검증 없이 대중적 기호에 따라 비학문적으로 의미를 부여받고 구획·정리됐음을 뜻한다. 그는 화랑의 인기작가 명단이 그대로 미술사에서도 의미있게 기술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해 단연코 ‘아니다’ 라고 고개를 젓는다. 그 예로 고회동을 든다.

“고회동의 경우 최초의 유희가라는 점에서 그의 예술적 업적에 비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그의 ‘연구자 신화’에 비해 유희가로서 그가 미술사에 남긴 내용은 미약한 편입니다. 또한 그가 행한 ‘화단정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이 모두는 소수의 미술 관련 집필자가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과도하게 미화시킨 결과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미술의 성격과 역사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먼저 우리 미술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몇가지 범주를 설정했다. ‘범고창신과 민족의식’ ‘향토색과 고담미론’ ‘시대상황과 비판정신’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범주에 따라 작가를 선정했다.

‘범고창신과 민족의식’의 범주에 속하는 화가로는 김진우·채용신·이응노·박생광 등이다. 이들은 모두 전통적 회화형식을 토대로 해 그것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경우다. 그리고 ‘향토색과 고담미론’에 속하는 화가로는 김환기를 든다. 하지만 윤교수는 이 부분을 20세기 한국미술의 대표적 특성으로 부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한다. 구체적 현장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리고 ‘시대상황과 비판정신’ 이 범주

에서 그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작가는 국내 최초의 조소가인 김복진이다.

“김복진이야말로 식민지 시대를 대표하는 비판적 작가였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였으며 사상가였죠. 오랫동안 옥중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 미술계에서 유일한 항일 독립운동가입니다. 그의 예술정신은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작품이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 미술사가 잊었던 작가들 새로이 발굴해

윤교수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다. 하지만 그 여행이라는 것도 자료수집차 나가는 ‘출장’ 성격이 짙다. 그는 자료가 있다는 말만 들으면 뉴욕·파리·도쿄를 가리지 않고 날아간다. 먼 거리를 날아가 사진 한장만 구해 오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허탕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10여년 동안 실크로드를 비롯한 히말라야 지역을 집중적으로 여행했다. 주로 오지를 찾아 다녔다. 그는 이 여행을 토대로 《발로 쓴 동서미술교류사》(가제)라는 책을 낼 계획이다. 이외에도 그는 쓰고 싶은 책이 많다. 윤교수의 머릿속에는 몇권의 책이 이미 입력돼 있다. 윤교수는 나혜석에 관심이 많다. 그는 우스갯소리로 “내가 영화감독이라면 나혜석을 모델로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나혜석은 공부할수록 매력적인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희가죠. 게다가 문인으로서의 평가도 높은 편입니다. 지금 미술계에 나혜석의 작품 30~40여점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위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윤교수가 근대미술을 연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동세대 이론전공자들이 거의 없는 탓이다. 연구자가 거의 혼자이다시피 한 현실 때문에 혼자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다보니 정작 연구성과를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까지 그는 호흡이 긴 작업을 하지 못했다고 못내 아쉬워한다.

이번 책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던 중 윤교수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작가 20여명을 새로이 발견했다. 이들 작품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우리 근대 미술사가 다시 써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윤교수는 이들에 관한 연구성과를 곧 책으로 묶어낼 계획이다. 《한국근대미술》은 그 전주곡인 셈. 우리 근대미술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할 윤교수의 다음 저작을 기대해본다.

— 최갑수 기자